

# 그린산업

## 그린산업 포인트

트럼프 행정부의 IRA 수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관련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 예상. 하지만 공화당 내의 반대 의원 수 유의미한 상태여서 선택적이고 점진적인 수정이 유력할 것으로 판단

## 트럼프정부의 IRA 수정 방향 예상

Green Industry [한병화\\_02\)368-6171\\_bhh1026@eugenefn.com](mailto:한병화_02)368-6171_bhh1026@eugenefn.com)

- 머스크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은 희망 사항일 뿐 IRA의 수정은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에 달려있어
- IRA 폐기는 공화당 내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 하원 의석수 차이 5석에 불과한데 폐기 반대 의원수 15명 확인
- 차별화되고 선택적인 축소 예상. 의회의 동의 확정되기 위해서는 2025년 하반기는 되어야 가능할 것
- 전기차 구매 보조금(리스차, 중고차 보조금 포함)의 축소 가능성 높아
- AMPC와 클린에너지 세액공제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연동되어 있어서 폐지보다 점진적인 축소 가능성 높아
- 대한민국 업체들 리스크 노출되어 있으나 미국 시장에 진입한 것이 주는 혜택이 단기 리스크 상쇄할 수 있다 판단
- 중국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입이 완전히 차단될 가능성이 커진 것은 배터리, 태양광 업체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
- 국내 관련주들의 주가 약세의 주원인인 트럼프의 IRA 훼손 리스크는 과도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

### 트럼프정부의 IRA 수정 방향 예상

기존 정책	변화 강도	예상 변화	예상 사례
AMPC(45X)	낮음	중국업체들 보조금 수령 배제 예상 FEOC 규정 엄격 적용	중국 태양광 모듈 캐파 25GW 위험 중국배터리와 라이선스 생산 무산 가능
Clean Energy Tax Credit	중간	에너지원별 차별 감축, 적용기간 축소 예상 화석연료업체들 수령하는 보조금 유지 가능	가정용 태양광, ESS 세액공제(25D) 축소 수소 PTC(45V), CCUS 세액공제(45Q) 유지 예상
Clean Vehicle Tax Credit	높음	신규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또는 축소 가능 중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또는 축소가능 리스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또는 축소 가능 FEOC 규정 엄격 적용	기간 두고 점진적 축소가 유력 중고 전기차 범위와 구매 가능 소득범위 축소 가능 수입 리스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가능 예외 적용 연장 가능성 희박
산업별 예상	리스크 강도	예상 변화	한국업체들 영향
육상 풍력, 태양광	중간	PTC, ITC 적용 연도 축소 적용	태양광은 미국내 중국업체들 설비 단축 긍정적
해상풍력	중간	ITC 적용 축소와 신규 입찰 중단 가능	기 승인된 15GW 물량만으로도 수주 풀 충분
전기차	중간	연비규제 대폭 축소와 구매 보조금 축소 예상	현지 대규모 공장 가동으로 상대적으로 유리
배터리	중간	전기차용 수요 둔화 vs BESS 수요 견조	중국 견제로 K 배터리 수혜보는 측면 있어

자료: 유진투자증권

**IRA 운명은 공화당 의원들에 달려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머스크와 같은 인사들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관련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행정부의 의도가 중요하지만 IRA 는 법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려면 공화당 상하원의 동의가 필수이다. 대선 전에 IRA 의 폐지를 반대하는 공화당 하원의원 18 명의 연판장이 공개된 바 있고, 이중 15 명은 재선되었다.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 의석수 차이가 5 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IRA 의 전면 폐지는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논하지 않아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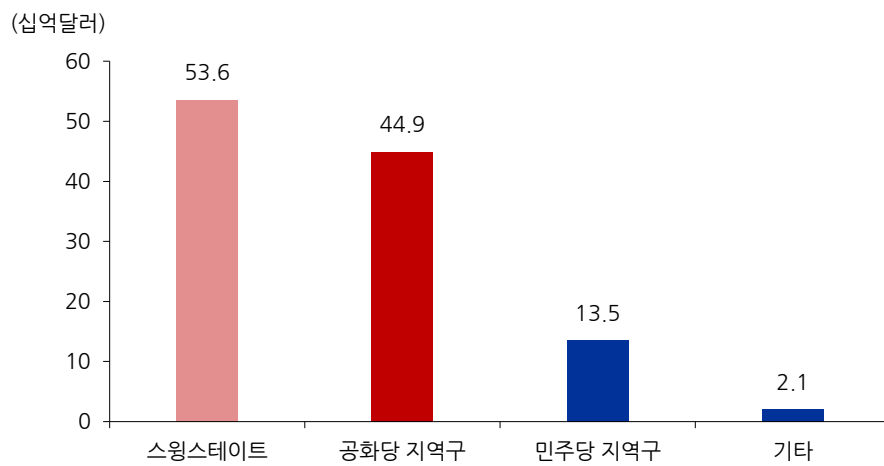
**선택적인 수정 예상**

현재까지 IRA 의 수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전기차 구매세액공제이다. 소비자 개인에게 지급되고 개별 지원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변경에 대한 저항이 낮기 때문이다. 구매세액공제 전체를 폐기하느냐 리스차, 중고차세액공제를 동시에 폐기하느냐의 이슈가 있다. 또한 배터리 보조금인 AMPC 의 보조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관련 공화당 주지사, 의원들이 전기차 구매세액공제도 점진적인 축소 방향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클린에너지 세액공제, AMPC 등은 상대적으로 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특히 클린에너지 세액공제는 전체 투자금액의 5% 이상이 수행된 것이 확인되면 정부가 관련 세액공제 전체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Safe Harbor).

**국내기업들 관련 리스크 있으나, 미국 시장 진입이라는 중장기 효과가 상쇄 가능하다 판단**

IRA 를 훼손하면 이를 믿고 투자한 국내 많은 기업들에게 리스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판단하면 미국이라는 가장 큰 시장에 진입했다는 것은 이러한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트럼프의 재등장은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 대한 견제 장벽을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국 내의 제조능력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확대하는 노력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미국도 유럽도 자국의 그린 제조업 능력으로는 중국과 경쟁할 수 없는 상태이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그린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있는 제조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중요성이 미국과 유럽에게 중요하게 다가올 것이다. 국내 그린산업 관련주들의 주가 약세의 주원인인 트럼프의 IRA 훼손 리스크는 과도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1. IRA 시행 후 지역별 그린산업 제조 공장 투자액



자료: BNEF,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5%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0%미만	1%

(2024.09.30 기준)